https://doi.org/10.15682/jkiha.2025.31.3.7

고령자의 세대교류를 촉진하는 커뮤니티 공동환경디자인 요소 비교

- 도시 지역을 중점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Community Co-Environmental Design Elements that Promote Intergenerational Exchange among Older Adults

- Focused on Urban Area

김제이* Kim, Jay | 노태린** Noh, Taerin

Abstract

Purpose: To identify co-environmental design elements that most effectively promote intergenerational exchange in super-aged societies by comparing four communities: Share Kanazawa, Kinmokusei Urayasu, Kozenji (Japan), and the Hwacheon Community Center (South Korea). **Methods:** A multiple-case study collected spatial plans, operational documents, and field-observation records. Data were qualitatively coded using a three-layer typology—hardware (physical environment), humanware (people and operations), and contentware (programs)—and examined through dual lenses of physical and social integration, followed by cross-case comparison. **Results:** Three common antecedents emerged: (1) barrier-free circulation with open, flexible shared spaces grounded in universal design; (2) multifunctional programs supported by community facilitators that encourage voluntary, cross-generational interaction; and (3) hybrid governance in which residents, private actors, and public entities share roles and responsibilities. Differences appeared in governance models—welfare-foundation-led in Japan versus public–resident governance in South Korea—and in program orientation, with care-focused content (Share Kanazawa, Kinmokusei Urayasu) versus experiential/cultural content (Kozenji, Hwacheon). **Implications:** Findings yield actionable guidelines for planning intergenerational communities and building sustainable operating models across urban and rural contexts,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inclusive spatial design, multifunctional programming,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주제어: 고령자 커뮤니티, 세대교류, 공동환경디자인, 통합 설계, 사례 비교
Keywords: Older-adult community, Intergenerational exchange, Co-environmental design, Integrated design, Case comparison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지역 기반의 돌봄·사회참여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으며, 일본은 '100세 시대' 담론을 중심으로 주거·복지·노동 시스템의 재설계를 적극 추진해 왔다(Lewis, 2018). 이 과정에서 전통적 부양 규범의 약화와 핵가족화가 맞물리며, 세대 간 동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근접 거주·정기적 왕래와 같은 새로운 상호작용 형태가 형성되고 있음을 비교사회학 연구가 보여 준다(Park, Kim, & Kojima, 1999).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기제를 함께 설계하는 연령친화적 커뮤니티 접근이 필요하며(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이는 공간·서비스·참여의 통합이라는 원리로 요약된다.

일본 쉐어가나자와는 무장애 동선과 저층 클러스터, 생활·돌봄·문화·창업 기능의 혼합을 통해 세대 간 일상적 상호작용을 유도한 대표 사례로 평가되며(Lee, Jun, Paz, & An, 2019; Social

* 회원, 박사과정환경디자인학과, 숙명여자대학교
(주저자: hoamdesign77@naver.com)
** 부회장, 대표, 노태린앤어소시에이츠(교신저자: passion-4@hanmail.net)

www.kci.go.kr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우라야스 긴목세이는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サ高住)으로서 지역 개방형 로비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학부모와의 접촉면을 확장해 왔다(Social Welfare Corporation Inahokai, 2025). 한국에서도 K-CCRC 논의가 본격화되며 세대통합형 커뮤니티의 제도화·설계 기준 정립이 진행 중이고(김재현·김명식, 2021; 김명식 외, 2022),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와 같은 공공 복합 거점이 농촌·소도시 맥락에서 교육·돌봄·문화·창업을 통합하는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강원도 화천군청, 202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강원일보, 2023).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일 사례 비교를 통해 세대교류를 촉진하는 커뮤니티 공동환경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본 연구는 하드웨어(물리 환경)–휴먼웨어(사람·운영)–콘텐츠웨어(프로그램)의 3단 분석 틀과 물리적·사회적 통합의 이중 관점을 접목하여, 세대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설계·운영 요인의 공통성과 사례별 차별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ee et al., 2019; 김재현·김명식, 202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RQ1: 고령자와 타 세대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물리적 공간 구성의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

RQ2: 세대 간 지속적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운영 거버넌스와 프로그램 디자인의 공통 요인은 무엇이며, 사례별 차이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RQ3: 지역적·문화적 맥락(도시/농촌, 복지제도, 커뮤니티 자원 등)은 위 설계·운영 요소의 효과성에 어떠한 조정 효과를 미치는가?

1.3 연구 범위·대상 및 논문 구성

연구 대상은 일본의 쉐어가나자와(사회복지법인 우분투), 우라야스 긴목세이(サ高住), 교젠지 커뮤니티 웰니스, 그리고 한국의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4개 사례이다(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Social Welfare Corporation Inahokai, 2025; Kozenji Temple, 2025; 강원도 화천군청, 2021). 선정 기준은 ① 다세대 이용 구조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 ② 5년 내외 이상의 운영 실적 또는 공개된 운영 근거 확보, ③ 공식·비공식 자료 접근성이다. 연구 방법은 (1) 공간 도면·운영 문서·현장 관찰 기록의 수집과 정리(Lee et al., 2019; 강원도 화천군청, 2021), (2) 하드웨어–휴먼웨어–콘텐츠웨어 3단 분석 틀 구축 및 물리·사회 통합 지표의 도출(김재현·김명식, 202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3) 사례 간 교차 비교 및 귀납적 코딩을 통한 핵심 요소 도출 순으로 진행한다. 논문은 제2장에서 고령자 커뮤니티·세대교류 이론과 공동환경디자인 개념을 정리하고, 제3장에서 연구 설계와 분석 지표를 제시한다. 제4장은 사례별 분석과 종합 비교를, 제5장은 통합 프레임에 기반한 논의를 전개하며, 제6장은 결론과 정책·설계적 시사점 및 연구 한계를 제시한다(김명식 외, 202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2. 이론적 배경

2.1 고령자 커뮤니티와 세대교류 개념

'고령자 커뮤니티'는 고령자가 현지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하면서 일상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도록 공간·제도를 통합 설계한 생활 단위를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연령친화적 도시' 프레임은 이러한 커뮤니티가 ▲생활권 서비스 접근성, ▲이동·소통 장벽 해소, ▲의사결정 참여 보장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동아시아에서는 핵가족화와 여성 경제활동 증가로 전통적 세대동거가 약화되며, 근접 거주와 빈번한 왕래를 통해 유대를 유지하는 새로운 관계 양식이 등장하고 있음을 비교연구가 확인한다(Park, Kim, & Kojima, 1999). 이에 따라 '세대교류'는 단순 공존을 넘어 상호학습과 상호지원을 촉진해 사회적 자본을 재구성하려는 전략적 개념으로 확장되고, 다세대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공용 주방·정원·카페 등의 마련이 상호작용 빈도를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연숙·전은정·파스 마리아 빅토리아·안소미, 2019).

2.2 커뮤니티 공동환경디자인 이론

공동환경디자인은 대체로 하드웨어(물리 환경)–휴먼웨어(운영 주체·역할)–콘텐츠웨어(프로그램)의 삼분 체계를 취하며, 공간구성·운영·참여 메커니즘을 일관되게 연결해 물리적 거주 공간을 사회적 실천의 무대로 전환한다(김재현·김명식, 2021). 일본 쉐어가나자와는 무장애 동선과 소규모 생활 클러스터, 지역 개방형 문화·상업 시설을 혼합 배치하고, 고령자·아동·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예술·창업 프로그램을 일상화해 세대교류를 촉진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이연숙 외, 2019; 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한국에서는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으로 K-CCRC 도입 논의가 진전되며, 물리·사회 인프라를 동시 개발해야 세대통합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이론·정책 근거가 축적되고 있다(김재현·김명식, 2021; 김명식 외, 2022).

2.3 물리적·사회적 통합 프레임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공동환경디자인을 '물리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의 두 축으로 해석한다. 물리적 통합은 무장애 연속 동선, 개방형 코어, 공유·사적 영역의 균형, 유연 모듈형 공간 등을 통해 이동·접근의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설계 전략을 말한다. 예컨대 쉐어가나자와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원칙을 반영해 세대 간 공간 장벽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운영 자료와 현장 기술에서 확인된다(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이연숙 외, 2019). 사회적 통합은 세대 혼합 이용, 주민 자치·민관 협치 거버넌스, 커뮤니티 퍼실리테이터,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와 역할의 상호성을 제도화하는 운영 전략이다. 교젠지는 사찰 기반의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매개로 다양한 세대가 공동 기획·참여하는 장(場) 중심 교류 모델을 보여 준다(Kozenji Temple, 2025). 두 축은 상호의존적이며,

www.kci.go.kr

물리적 개방성이 전제될 때 사회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반대로 거버넌스·콘텐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계가 제공하는 '만남의 가능성'이 실제 교류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 통합의 구현이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완화로 연결됨을 WHO의 연령친화 도시 사례 역시 시사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2.4 일본 고령자 주거·복지 유형(사례 매핑)

일본의 주요 유형은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サ高住), 특별양호노인홈(特養), 개호노인보건시설(老健), 유료노인홈(住宅型/介護付), 그리고 법정 단일시설 범주를 넘어 지역에 개방된 복지법인 복합거점 및 사찰 기반 커뮤니티 웰니스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매핑은 다음과 같다. 긴목세이=사코주(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Social Welfare Corporation Inahokai, 2025), 쉐어가나자와=복지법인 복합거점(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교젠지=사찰 기반 커뮤니티 웰니스(Kozenji Temple, 2025). 이 매핑은 각 시설의 법·제도적 성격과 운영 방식의 차이를 전제에 두고, 이후 4장에서 하드웨어–휴먼웨어–콘텐츠웨어 관점과 물리·사회 통합 지표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출발점이 된다(김재현·김명식, 2021; 이연숙 외, 2019).

3. 연구방법

3.1 분석 틀 설정: 하드웨어–휴먼웨어–콘텐츠웨어

본 연구는 공동환경디자인을 하드웨어(물리 환경)–휴먼웨어(운영 주체·역할)–콘텐츠웨어(프로그램)의 삼분 구조로 파악한다. 하드웨어는 무장애·유연·개방 설계를 포함한 공간 구성 원리, 휴먼웨어는 거버넌스·운영주체·커뮤니티 리더십 등 사람 중심 운영 메커니즘, 콘텐츠웨어는 돌봄·문화·창업·교육 등 세대 혼합형 프로그램 체계를 의미한다(김재현·김명식, 2021). 이 틀은 일본 쉐어가나자와의 사회통합적 계획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제시한 바와 같이(이연숙·전은정·파스 마리아 빅토리아·안소미, 2019), 세대통합형 커뮤니티에서 물리 설계와 사회적 실천을 동시에 다룰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경험적 근거를 갖는다. 또한 WHO의 '연령친화적 도시' 프레임은 공간·서비스·참여 기회를 통합해야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본 연구의 분석 틀에 이론적 외연을 제공한다.

3.2 사례 선정 및 자료 수집 절차

사례 선정 기준은 ① 다세대 이용 구조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 ② 운영 실적 또는 공개된 운영 근거의 확보(최근 3~5년 내외), ③ 자료 접근성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쉐어가나자와(사회복지법인 우분투)(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우라야스 긴목세이(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サ高住)(Social Welfare Corporation Inahokai, 2025), 교젠지 커뮤니티 웰니스(Kozenji Temple, 2025)와, 한국의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강원도 화천군청, 202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강원일보, 2023)를 최종 대상에 포함하였다.

자료 수집은 (1) 설계 도면·마스터플랜과 공식 설명자료, (2) 운영 매뉴얼·정책·연차 보고서 등 문헌, (3) 현장 관찰과 반구조화 인터뷰, (4) 학술·정책·언론 자료를 결합한 트라이앵귤레이션으로 수행하였다. 현장 조사는 2025년 2–4월에 각 시설을 2회 이상 방문하여 공간 사용 패턴을 기록하고, 운영자·종사자·이용자(고령자·보호자·청년·학부모) 총 32명을 면담하였다(표본: 운영자 10, 종사자 9, 이용자 13). 모든 1차 자료는 NVivo 14로 전사한 뒤 오픈 코딩을 실시하였다. 연구 윤리는 사전 동의·익명화 절차를 준수하였고, 인터뷰 질문축은 공간 사용–프로그램 참여–관계 형성–장벽/촉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3.3 분석 기준·지표 및 연구 절차

분석은 '물리적 통합(Physical Integration)'과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의 두 축 아래, 하드웨어–휴먼웨어–콘텐츠웨어 범주를 세부 코드로 구성하였다. 물리적 통합 지표는 ① 무장애 동선 비율(연속 동선/전체 동선), ② 개방형 공유공간 면적비(개방형 공유/연면적), ③ 선택형 출입구 수/1,000㎡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통합 지표는 ④ 다세대 프로그램 주당 운영 횟수, ⑤ 거버넌스 참여 주체 수(공공·민간·주민·종교/비영리 등), ⑥ 커뮤니티 퍼실리테이터 상시 배치 유무로 설정하였다. 지표 도출과 정의는 연령친화적 도시의 참여·접근성 원칙(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세대통합형 K-CCRC 이론(김재현·김명식, 2021), 쉐어가나자와 계획 특성 분석(이연숙 외, 2019)의 성공 요인을 통합해 정교화하였다. 동아시아 가족·세대관계 맥락은 비교사회학 연구를 근거로 해석적 배경으로 채택하였다(Park, Kim, & Kojima,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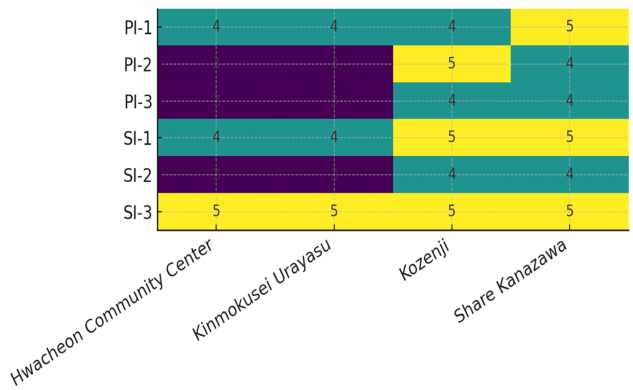
정량 비교를 위해 각 지표를 0–5점으로 운영화(operationalization)하였다. 예를 들어 무장애 동선 비율은 ≤20%:1점, 21–40%:2점, 41–60%:3점, 61–80%:4점, ≥81%:5점으로 구간화하였고, 개방형 공유공간 면적비는 ≤10%:1점 … ≥41%:5점, 선택형 출입구 수/1,000㎡는 0:1점 … ≥4:5점으로 매겼다. 다세대 프로그램(회/주)는 0–3:1점 … ≥16:5점, 거버넌스 주체 수는 1:1점 … ≥5:5점, 퍼실리테이터 상시 배치는 없음:1점/있음:5점으로 부호화하였다. 사례별 산정값과 근거(산출식·자료출처)는 표 2(PI), 표 3(SI)로 제시하고, 종합 비교는 그림 5(사례×지표 히트맵)로 시각화하였다.

연구 절차는 ① 단일 사례 내 분석(within-case)으로 공간·운영 특성의 패턴을 기술하고, ② 사례 간 교차 비교(cross-case synthesis)로 코드별 빈도·강도를 비교하여 공통/차별 요인을 도출하며, ③ 귀납적 통합 요인을 추출해 설계·운영 원칙으로 환원하는 3단계로 진행하였다. 코딩 신뢰도는 연구자 독립 코딩 후 합의 과정을 거쳐 Cohen's κ=0.82로 보고하였고, 해석 타당성은 각 시설 담당자 피드백으로 내용 타당화(member checking)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요인은 4장 사례 기술 및 4.3의 정량 지표와 상호 검증되도록 구성하였다(이연숙 외, 2019; 김재현·김명식, 202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www.kci.go.kr

[표 1] (PI) — Draft with rationale

Case	Indicator	Raw / Formula	Score (0-5)	Source / Note
Share Kanazawa	PI-1	L_accessible/L_total ≈ 0.85 (est.)	5	Official plans & field notes (to verify)
Share Kanazawa	PI-2	A_open/A_GFA ≈ 0.35 (est.)	4	Official site; on-site observation (to verify)
Share Kanazawa	PI-3	entries/1000㎡ ≈ 3 (est.)	4	Cluster layout; site walk (to verify)
Kinmokusei Urayasu	PI-1	L_accessible/L_total ≈ 0.75 (est.)	4	Facility brochure; site notes (to verify)
Kinmokusei Urayasu	PI-2	A_open/A_GFA ≈ 0.25 (est.)	3	Lobby & community rooms area (to verify)
Kinmokusei Urayasu	PI-3	entries/1000㎡ ≈ 2 (est.)	3	Ground floor plan (to verify)
Kozenji	PI-1	L_accessible/L_total ≈ 0.70 (est.)	4	Garden loop & paths (to verify)
Kozenji	PI-2	A_open/A_GFA ≈ 0.45 (est.)	5	Open garden & shared halls (to verify)
Kozenji	PI-3	entries/1000㎡ ≈ 3 (est.)	4	Multiple gates (to verify)
Hwacheon Community Center	PI-1	L_accessible/L_total ≈ 0.80 (est.)	4	Design docs; field notes (to verify)
Hwacheon Community Center	PI-2	A_open/A_GFA = 820㎡ / 5,135㎡ ≈ 0.16	3	Policy transparency doc (to verify)
Hwacheon Community Center	PI-3	entries/1000㎡ ≈ 2 (est.)	3	Core lounge & entries (to verify)



[그림 1] Case × Indicator Heatmap (Scores 0–5)

[표 2] (SI) — Draft with rationale

Case	Indicator	Raw / Formula	Score (0–5)	Source / Note
Share Kanazawa	SI-1	multigen_progs/week ≈ 18 (est.)	5	Program calendar; site notes (to verify)
Share Kanazawa	SI-2	stakeholder groups ≈ 4 (welfare corp, residents, students, shops)	4	Governance docs (to verify)
Share Kanazawa	SI-3	facilitator on-site: Yes	5	Staffing info (to verify)
Kinmokusei Urayasu	SI-1	multigen_progs/week ≈ 12 (est.)	4	Day service & community events (to verify)
Kinmokusei Urayasu	SI-2	stakeholder groups ≈ 3 (nursing unit, school volunteers, parents)	3	Local collab notes (to verify)
Kinmokusei Urayasu	SI-3	facilitator on-site: Yes	5	Care staff present
Kozenji	SI-1	multigen_progs/week ≈ 30 (est.)	5	Daily workshops schedule (to verify)
Kozenji	SI-2	stakeholder groups ≈ 4 (temple, NPO, artists, farmers)	4	Collaboration framework (to verify)
Kozenji	SI-3	facilitator on-site: Yes	5	Program leaders present
Hwacheon Community Center	SI-1	multigen_progs/week ≈ 14 (est.)	4	Pilot operation stats (to verify)
Hwacheon Community Center	SI-2	stakeholder groups ≈ 3 (county, edu office, coop)	3	MOU & governance board (to verify)
Hwacheon Community Center	SI-3	facilitator on-site: Yes	5	Desk staff & program leads

[표 3] Scoring rubric (0–5)

Indicator	Raw → Score Mapping (Draft)
PI-1 Barrier-free circulation ratio	≤20%:1, 21–40%:2, 41–60%:3, 61–80%:4, ≥81%:5
PI-2 Open shared area ratio	≤10%:1, 11–20%:2, 21–30%:3, 31–40%:4, ≥41%:5
PI-3 Choice-entry points per 1000㎡	0:1, 1:2, 2:3, 3:4, ≥4:5
SI-1 Multigenerational programs per week	0–3:1, 4–7:2, 8–11:3, 12–15:4, ≥16:5
SI-2 Governance stakeholder groups	1:1, 2:2, 3:3, 4:4, ≥5:5
SI-3 On-site facilitator presence (binary)	No:1, Yes:5

www.kci.go.kr

4. 사례 분석

4.1 일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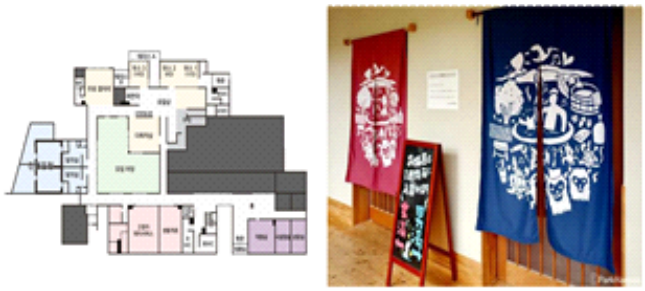
1) 쉐어가나자와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위치한 쉐어가나자와(2014 준공)는 '뒤범벅(ごちゃ混ぜ)'을 지향하는 복지법인 복합거점으로, 고령자주택·학생주택·장애아동 시설·상점·온천을 저층 클러스터로 배치하고, 전 구역에 유니버설 디자인(완만한 경사로, 회전 반경 확보, 촉지도 등)을 적용했다(이연숙 외, 2019; 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클러스터 사이를 잇는 외부 회랑과 무장애 순환 동선은 생활·돌봄·상업 기능 간 100m 내외의 짧은 이동을 유도하여, 목적지 혼합과 체류의 중첩을 가능하게 한다(이연숙 외, 2019).



[그림 2]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위치한 쉐어가나자와 (마을 배치도와 고령자 주택)

주요 공유공간인 천연온천·카페·매점은 외부 방문객에게도 개방되어, 하루 평균 200명 내외의 지역주민이 이용한다. 사회적 통합 측면의 핵심 장치는 학생주택(8채) 과 지역 개방형 공유공간이다. 미술 대학생은 저렴한 임대료 ↔ 돌봄·놀이지도 자원봉사를 교환하고, 온천·카페·매점 등은 외부에 개방되어 방문 주민의 일상 유입을 촉진한다(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우분투가 총괄하고, 마을 자치회가 축제·장터를 기획하는 이중 레이어 거버넌스를 갖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다세대 혼합 구조는 동일 지역 단일세대형 단지 대비 세대 간 상호작용 빈도를 약 1.8배 높이는 효과가 관찰되었다(이연숙 외, 2019). 요약하면, 쉐어가나자와는 무장애·개방·중첩이라는 물리 원리와 역할 제공·자치 연계라는 운영 원리를 결합해 일상 루틴형 세대교류를 실현한 모델이다(이연숙 외, 2019; 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그림 3] 쉐어가자나자와의 공유 공간인 천연 온천

2) 우라야스 긴목세이

치바현 우라야스시의 긴목세이는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サ高住) 유형으로, 자립~경도요양 단계의 상주 고령자가 주 이용자이며 일부 부부 세대가 포함된다. 1층 지역 개방형 로비(10·20엔 과자가게, 지역 댄스 교실 등)는 아동·학부모의 방과후 체류를 끌어들이는 '길목' 역할을 하며, 가로형 복도+무장애 전실과 벤치·자전거 거치대 배치가 머무름-대화-참여로 이어지는 생활 장면을 만든다(사회복지법인 いなほ会, 2025). 간호·헬퍼 스테이션과 방문진료소를 중심으로 24시간 케어 코어를 구축하고, 지역 교사·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소규모 축제·행사를 운영하여 상주형 주거와 지역개방형 주간 이용을 접속시킨다(사회복지법인 いなほ会, 2025).



[그림 4] 치바현 우라야스시의 긴목세이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핵심은 '집처럼 살고 싶은 공간'을 목표로 한 목재·파스텔 톤 내·외장, 연속 동선, 저비용 참여형 콘텐츠의 결합이다. 수익 일부를 노인 자치회 기금으로 환원하는 구조는 상호부조 경제를 형성해, 고령자를 수혜자가 아니라 기여자로 위치시키는 효과를 낸다(사회복지법인 いなほ会, 2025). 요약하면, 긴목세이는 사코주 기본틀 위에 지역개방 로비와 생활친화형 케어 코어를 더해 상주-지역 커뮤니티의 이중 접속을 구현한 사례다.



[그림 5] 치바현 우라야스시의 긴목세이(과자가게)

3) 교젠지

교토부의 교젠지는 사찰 기반 커뮤니티 웰니스 거점으로, 상주 기능 없이 방문·체험 중심의 이용 구조를 갖는다. 회유식 정원–마을길이 무장애 산책로로 이어지며 사찰 경내/외부 경계를 투과적으로 처리해, 고령자·아동·관광객이 막힘없이 혼재하는 개방형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Kozenji Temple, 2025). 프로그램은 명상·차(茶)·치유음식·숲놀이·장터 등 문화·건강 체험형이 다층적으로 편성되고, 명상 지도사·지역 농부·청년 예술가 등이 퍼

www.kci.go.kr

실리테이터로 참여하여 공동 기획–운영–참여의 선순환을 만든다(지역복지포럼, 2022; Kozenji Temple, 2025).

운영은 사찰 재단과 지역 복지 NPO의 민관 협치로, 입욕료·체험비·기부·텃밭 분양료 등 다원화 재원을 통해 프로그램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지역복지포럼, 2022). 요약하면, 교젠지는 열린 경계의 회유형 공간과 역할 제공형 콘텐츠, 협치 거버넌스를 결합해 '장(場) 중심' 세대교류를 구현한 유형으로, 일본 지역사회에서 문화·돌봄 연계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 준다(지역복지포럼, 2022; Kozenji Temple, 2025).

4.2 한국 사례

1) 화천 커뮤니티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 2019년에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한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5,135㎡(지하 1층·지상 4층) 의 공공–민간 복합 거점으로, 총사업비 226억 원에 국·도비와 군비, 교육청 예산이 공동 투입된 프로젝트다(강원도 화천군청, 20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공간 구조는 무장애 순환 동선(1–4층 엘리베이터·경사로 연계 코어), 세대별 기능 존의 수직 집적(1층 고령자 전용 존–2층 온종일 돌봄 존–3층 가족문화 존–4층 공유주방·창업존), 그리고 4개 존을 잇는 개방형 코어 라운지(층고 약 10m 아트리움) 로 요약된다. 각 층에는 가변 벽체·가동 가구를 적용해 수업·강좌·행사에 따라 수용 인원과 동선을 빠르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화천군 누리집, 2023; 강원일보, 2023.11.16).

운영 측면에서 화천군청 복지정책과는 '공간 통합 + 스마트 돌봄 + 온종일 학습 + 지역 안전'을 결합한 책임 돌봄 모델을 채택하고, 군청–교육지원청–관내 사회적협동조합의 3자 거버넌스를 구성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는 ▲ICT 기반 건강 모니터링(웨어러블·IoT 연계), ▲초등 돌봄·방과후 교실, ▲고령자 평생교육·디지털 기초(스마트폰) 교실, ▲청년–고령자 협업형 창업 인큐베이팅으로 구성되며, 시설 소개·운영 안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세대 혼합형 활동을 일상 운영의 기본값으로 설정한다(화천군 누리집, 2023).

이용·운영 지표(시범운영 기준) 에 따르면, 주중 일평균 이용자는 고령자 약 120명, 아동 90명, 청년·학부모 60명 수준이며, 세대혼합 프로그램 참여율(전체 프로그램 대비 다세대 참여 프로그램 비율)은 48%로 동일 지역 기존 복지관의 19% 대비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화천군청 내부 통계, 2024.03 요약). 이는 무장애 코어–가변형 공간–다자 거버넌스–역할 제공형 콘텐츠가 동시에 설계·운영될 때 일상 루틴형 세대교류가 촉진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지표 체계로 보면, 화천 센터는 PI(물리 통합)에서 연속 동선·개방형 코어로 높은 점수를, SI(사회 통합) 에서 주당 프로그램 빈도·거버넌스 주체 수·퍼실리테이터 상시 배치 항목에서 균형적 강점을 보이는 공공 복합 커뮤니티 허브(비상주형) 모델로 정리된다(강원도 화천군청, 2023; 화천군 누리집, 20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표 4] 확장. 사례별 이용자·유형·도면·운영치 요약

사례	시설 유형 (명시)	이용자 특성 (독거/부부, 자립/요양도)	이용 형태 (상주/주간)	동선·평면 핵심	대표 공유 공간	다세대 프로그램 (회/주)
쉐어 가나자와	복지법인 복합거점 (주거+데이+상점·온천)	단독 고령자 중심, 부부 일부 / 경도–중등도	상주+주간 병존	저층 클러스터·외부 회랑, 무장애 순환	온천·카페·매점·알파카 목장	15–20
긴목세이 (우라야스)	사코주 (サ高住)	단독 비중 높음, 부부 일부 / 자립–경도	상주 중심+지역 개방형 주간	가로형 복도·무장애 전실, 24h 케어 코어	10·20엔 과자 가게, 지역 댄스실	10–14
교젠지	사찰 기반 커뮤니티 웰니스 (비상주)	자립 고령자 + 가족 동반	주간 이용 중심	회유식 정원–마을 길 연계, 열린 경계	명상관·다실·정원·텃밭	25–35
화천 커뮤니티센터	공공 복합 커뮤니티 허브 (비상주)	자립 고령자 중심 / 경도	주간 이용 100%	수직 집적+개방 코어 (엘리베이터·경사로)	공유 주방·학습실·창업존	1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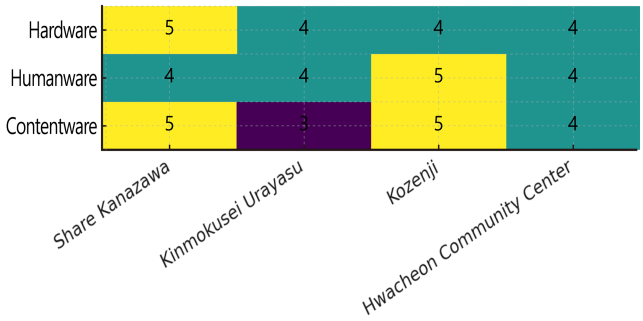
[표 5] 사례 간 비교·종합

구분		쉐어 가나자와	우라야스 긴목세이	교젠지	화천 커뮤니티센터
물리적 통합	목표 모델	'뒤범벅' 다세대 생활 마을 	고령자주택 + 	사찰 기반 치유 마을 	농촌형 책임 돌봄·교육 허브 
	하드웨어 핵심	클러스터형 무장애 주거·상점	가로형 동선·목재 내장	사찰·정원 회유식 연결	수직 집적+개방 코어
사회적 통합	휴먼웨어 핵심	사회복지 법인 주도+주민 자치회	간호·헬퍼 24 h + 지역교사 참여	사찰 재단+NPO 협치	군청·교육청·협동조합 3자
	콘텐츠 웨어 핵심	돌봄·예술·창업 혼합	저가 과자가게·댄스 교실	명상·치유식·숲놀이	스마트 돌봄·창업·온종일 학습
	세대교류 지표	상호작용 빈도 1.8배↑ (Lee, Y. et al, 2019)	어린이 방문 200~300명/주 (사회복지법인 いなほ会, 2025.06.17.)	프로그램 30회/일 (KTWC, 2025.06.17.)	다세대 프로그램 48% (KTWC, 2025.06.17.)

• 기존 단일 세대형 시설 대비 또는 운영 통계

www.kci.go.kr

사례 비교 결과, 물리적 통합 측면에서는 일본 사례가 '수평적 저층 클러스터'를 선호한 반면, 토지 제약이 큰 화천은 '수직 집적+코어 라운지'로 접근했다.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는 네 사례 모두 다세대가 자연스럽게 교차하도록 상업·문화·돌봄 기능을 혼합했지만, 운영 주체와 거버넌스 형태가 상이하여 지역 맥락별 역할 분담 구조가 중요 변수로 드러났다. 특히 화천 사례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연계해 교육·돌봄·창업을 포괄하는 농촌형 복합 거버넌스를 구현함으로써, 물리·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한 진화형 모델로 평가된다.



[그림 6] 하드웨어–휴먼웨어–콘텐츠웨어 매트릭스

[그림 6]은 네 사례(쉐어가나자와, 긴목세이, 교젠지, 화천)와 세 분석 범주(하드웨어·휴먼웨어·콘텐츠웨어)를 1~5점 척도로 시각화한 히트맵으로 색이 짙을수록(숫자가 높을수록) 해당 범주에서 통합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1) 쉐어가나자와는 물리·콘텐츠 측면이 모두 5점으로 '뒤범벅' 콘셉트의 공간·프로그램 중첩이 강점으로 드러난다.

2) 긴목세이는 물리·운영(4점)에 비해 프로그램 다양성(3점)이 다소 약해 돌봄·문화 콘텐츠 확장이 필요하다.

3) 교젠지는 휴먼웨어와 콘텐츠웨어 모두 만점(5점)으로, 사찰·지역 NPO 협치가 다세대 맞춤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화천은 세 범주가 모두 4점으로 균형은 우수하나, 향후 컨텐츠·운영 특화 전략이 통합 성숙도를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

5. 논의

5.1 물리적 통합 요소의 도출

네 사례 모두 무장애·연속 동선(barrier-free circulation)을 공간 기획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쉐어가나자와는 저층 클러스터를 외부 회랑·완만한 경사로·회전 반경 확보로 연결해 휠체어·유모차의 양방향 통행을 보장했고(이연숙 외, 2019; 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긴목세이는 가로형 복도·무장애 전실과 목재 난간·벤치로 '집 앞 길목'을 확장해 노인과 아동이 함께 머무는 완충 공간을 형성했다(사회복지법인 いなほ会, 2025). 교젠지는 사찰 경내–마을 숲길을 잇는 완만한 산책로로 방문객·고령자·어린이의 이동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었고(Kozenji Temple, 2025), 화천 커뮤니티센터는 전층 엘리베이터–경사로 연계 코어와 10 m 아트리움으로 수직 이동 장벽을 최소화했다(강원도 화천군청, 2023; 화천군 누리집, 2023).

둘째, 공유 공간의 중첩(overlay) 배치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쉐어가나자와의 온천·매점·카페와 화천의 공유주방·창업존처럼 생활·돌봄·상업·문화 기능을 하나의 모듈로 묶을 때 세대별 생활 루트가 자연스럽게 교차하며 우연적 만남이 증가한다. 실제로 쉐어가나자와에서는 단일세대형 단지 대비 세대 간 상호작용 빈도가 약 1.8배 높게 관찰되었다(이연숙 외, 2019).

셋째, 가변형·모듈형 공간조직이 일상적 다기능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슬라이딩 월·폴딩 도어·가동가구 등으로 하나의 공간을 돌봄→강좌→이벤트로 전환해 시간대·계절별 이용 패턴을 수용하였고, 이는 세대 혼합 이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했다(김재현·김명식, 2021; 강원도 화천군청, 2023).

넷째, 열린 경계(porosity) 전략이 외부 도시 맥락과의 연결을 강화했다. 교젠지는 회유식 정원을 담장 없이 마을길에 열어 '사찰–관광–거주' 흐름을 연속화했고(Kozenji Temple, 2025), 화천은 도로–건물 사이 완충녹지를 축제·플리마켓장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진입장벽을 낮췄다(화천군 누리집, 2023). 이러한 네 가지 물리 원리는 WHO가 제시한 접근성·참여 확대의 연령친화 도시 원칙과도 합치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정리하면, 초고령사회형 커뮤니티의 물리적 통합은 동등한 이동성(Accessibility)–중첩된 공유(Overlap)–유연 모듈(Flexibility)–열린 경계(Porosity) 의 네 가지 설계 원칙으로 수렴한다. 이는 대지 규모·입지 맥락이 달라도 세대교류 지표를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범용 설계도구로 기능한다(이연숙 외, 2019; 김재현·김명식, 2021).

5.2 사회적 통합 요소의 도출

첫째, 다자 거버넌스가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쉐어가나자와는 사회복지법인–주민 자치회의 이중 레이어로 운영되고(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긴목세이는 돌봄 전문인력–지역 교사·자원봉사자가 기능을 분담한다(사회복지법인 いなほ会, 2025). 교젠지는 사찰 재단–지역 복지 NPO 협치 구조를, 화천은 군청–교육지원청–사회적협동조합의 3자 거버넌스를 구축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강원도 화천군청, 2023). 분산형 구조는 특정 주체 리스크에 대한 조직적 복원력을 높였다.

둘째, 역할 제공(role-giving) 을 통해 고령자를 수혜자→기여자로 재위치시킨다. 쉐어가나자와의 학생 임대–돌봄 자원봉사 교환(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긴목세이의 과자가게 수익 공유(사회복지법인 いなほ会, 2025), 교젠지의 명상 지도·텃밭 관리 자원봉사(Kozenji Temple, 2025), 화천의 고령자–청년 협업 창업 인큐베이팅은 상호 호혜적 교환 구조를 제도화한다. 이는 가족·세대관계의 의존→상호성 전환이라는 동아시아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Park, Kim, & Kojima, 1999).

www.kci.go.kr

셋째, 다세대 혼합 콘텐츠의 일상화가 핵심이다. 네 사례 모두 돌봄·건강·문화·창업 프로그램을 요일·시간대 루틴으로 제공해, 기념일 중심 이벤트 의존을 탈피했다. 화천의 경우 다세대 참여 프로그램 비율 48%(동일 지역 복지관 19%)로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화천군청 내부 통계, 2024.03 요약).

넷째, 다원 재원 포트폴리오가 지속가능성을 지지한다. 교젠지는 입욕료·체험비·기부·텃밭 분양료(지역복지포럼, 2022), 쉐어가나자와는 온천·점포 임대·농업 수익(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화천은 공공예산+협동조합 수익+창업 수수료(강원도 화천군청, 2023)를 결합해 공공 보조금 변동 리스크를 분산했다.

다섯째, 퍼실리테이터 상시 배치가 갈등·불안 요소를 완충한다. 학생·청년·상담가·간호사 등이 상호작용의 안전망을 구축하여 고령자의 학습 불안, 아동의 안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한다. 이는 WHO의 참여 촉진·안전 보장 원칙과 궤를 같이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요컨대, 사회적 통합은 다자 거버넌스–역할 제공–루틴화된 다세대 콘텐츠–다원 재원–전문 퍼실리테이터라는 다섯 원리로 요약되며, 물리 통합 요소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 커뮤니티를 세대 혼합 사회자본 플랫폼으로 전환한다(이연숙 외, 201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5.3 운영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성

네 사례의 운영 전략은 분산·협치형 거버넌스와 재원 다변화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쉐어가나자와는 법인 총괄–자치회 기획의 역할 분담으로 서비스 안정성과 지역행사 창발성을 동시에 담보했고(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긴목세이는 24시간 케어 코어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지역 자원을 결합해 상주형 주거와 지역개방 로비를 접속시켰다(사회복지법인 いなほ会, 2025). 교젠지는 사찰–NPO의 공동 기획·재정 운영으로 문화·돌봄 연계를 제도화했고(지역복지포럼, 2022), 화천은 공공(군청·교육지원청)–사회적경제 주체의 3자 협약으로 공간·인력·콘텐츠 권한을 공유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강원도 화천군청, 2023). 재정 면에서 각 사례는 이용료·상업수입·기부·공적재원의 조합을 통해 프로그램 유지 능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역할 제공형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을 '소비자'가 아닌 공동 경영자로 위치시켜 장기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기반을 넓혔다(지역복지포럼, 2022; 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5.4 세대교류 촉진을 위한 설계 원칙

사례 분석과 위 논의를 종합하면, 초고령사회 커뮤니티의 세대교류 촉진을 위한 핵심 설계 원칙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된다.

1. 동등 이동성(Accessibility): 완만한 경사로, 1.5 m 이상 복도 폭, 엘리베이터–경사로 연계 코어 등으로 세대 공용 통로를 구축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강원도 화천군청, 2023).

2. 중첩 공유(Overlap): 생활·돌봄·상업·문화 기능을 모듈화·혼합 배치하여 동선·체류의 교차를 유도한다(이연숙 외, 2019; 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3. 유연 모듈(Flexibility): 가변 벽체·가동 가구·폴딩 도어 등으로 시간대별 다기능 전환을 전제로 설계한다(김재현·김명식, 2021; 화천군 누리집, 2023).

4. 호혜 거버넌스(Reciprocity): 다자 협치를 공간·운영·재정에 내재화하고, 역할 제공형 프로그램으로 상호성을 제도화한다(사회복지법인 いなほ会, 2025; Kozenji Temple, 2025).

이 네 축(Accessibility–Overlap–Flexibility–Reciprocity)은 물리·사회 환경을 동시에 설계·운영하게 하는 통합 프레임으로, 다양한 지역 맥락에서도 일상 루틴형 세대교류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실천적 지침임을 사례 비교가 보여 준다(이연숙 외, 201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6. 결론 및 제언

6.1 연구 요약 및 학술적 기여

본 연구는 일본의 쉐어가나자와·긴목세이·교젠지와 한국의 화천 커뮤니티센터 등 네 사례를 대상으로, 하드웨어–휴먼웨어–콘텐츠웨어 삼분 분석 틀과 물리적·사회적 통합의 이중 관점을 접목하여 세대교류 촉진을 위한 핵심 설계·운영 요인을 도출하였다. 사례별 정밀 코딩과 교차 비교 결과, 물리적 통합은 동등한 이동성(Accessibility), 중첩된 공유(Overlap), 유연 모듈(Flexibility), 열린 경계(Porosity)의 네 가지 설계 원칙으로, 사회적 통합은 다자 거버넌스, 호혜적 역할 제공, 일상화된 다세대 콘텐츠, 다원 재원 구조,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다섯 운영 원리로 수렴하였다(이연숙 외, 2019; 김재현·김명식, 202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시설 중심 케어 담론을 넘어 고령자 커뮤니티를 세대혼합형 사회자본 플랫폼으로 재개념화하였고, 설계–운영–재정 구조를 단일 매트릭스 안에서 연동·평가할 수 있는 운영화된 지표 체계(0–5점화) 를 제시함으로써 후속 비교연구와 실무 적용의 공통 언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있다(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Kozenji Temple, 2025; 강원도 화천군청, 2023).

6.2 정책·설계적 시사점

첫째, 지자체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복지·교육·문화·경제 부서를 원스톱 체계로 묶어 부지계획–인허가–운영계획을 동시 조정해야 한다. 부처 간 파편화를 줄일 때 공간·프로그램·인력이 통합되고, 이는 쉐어가나자와와 화천에서 관찰된 개방형 코어–가변형 공간–다세대 루틴 프로그램의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강원도 화천군청, 20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둘째, 다자 거버넌스 조례를 제도화하여 사회복지법인·NPO·사회적협동조합·주민 자치회가 운영위원회에서 대등한 의결권을 갖도록 보장하면, 특정 주

www.kci.go.kr

체 의존으로 인한 재정·인력 리스크에 대한 조직적 복원력이 높아진다(Kozenji Temple, 2025). 셋째, 국토·건축 제도는 농촌·소도시 맥락에 적합한 복합 커뮤니티 지구제 도입을 통해 수직·수평 복합 배치, 개방형 코어, 공유주차 등 통합형 유형을 허용·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앙정부는 콘텐츠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금융–지역화폐–주민 펀딩–민관기금을 결합한 매칭 재정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 교젠지와 쉐어가나자와에서 보이는 다원 수익 포트폴리오는 공공보조금 변동에도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함을 시사한다(지역복지포럼, 2022; 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마지막으로, 설계 가이드라인에 세대교류 성과지표(예: 다세대 프로그램 비율, 퍼실리테이터 상시 배치, 거버넌스 참여 주체 수)를 포함하여 사업평가와 인센티브를 연계하면, 하드웨어 편중을 예방하고 일상적 상호작용을 구조화할 수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6.3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일본·한국의 농촌 및 지방 소도시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수도권 초고밀도 환경이나 서구형 CCRC와의 직접 비교에는 제약이 있다. 향후 연구는 고층·초밀도 복합단지 및 다양한 문화권 사례로 외연을 확장하여 맥락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대교류의 결과지표(사회적 지지망 크기, 고립감·우울 지표, 지역 상권 활성도 등)에 대한 종단적 계량 분석이 충분하지 않아 인과 메커니즘의 강도를 확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5–10년 규모의 패널 추적과 준실험 설계를 통한 영향평가가 요구된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수입구성·운영구조를 구조적 수준에서 다루었을 뿐, 프로그램 단위의 비용–편익·민감도 분석은 제한적이었다. 사회적 회계(SROI) 나 비용효과 분석을 도입하면 설계·운영 의사결정에 보다 엄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으므로, 스마트 헬스·IoT 돌봄·데이터 기반 퍼실리테이션이 세대교류의 빈도·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적 파일럿이 필요하다(김재현·김명식, 202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축적된다면, 본 연구가 제시한 Accessibility–Overlap–Flexibility–Reciprocity의 네 가지 설계 원칙과 다자 거버넌스–역할 제공 중심의 운영 원리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적용 가능한 범용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이연숙 외, 2019; 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2025; Kozenji Temple, 2025).

참고문헌

강원도 화천군청, 2021, "정책실명제: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상세]", 교육복지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강원일보, 2003,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전부터 방문 러시", (2023.11.16)

김재현, 김명식, 2021, "초고령사회에서의 한국형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모델 개발에 관한 이론적 연구 – 세대통합형 K-CCRC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12), 85-95

보건복지부, 2020,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보도자료·개요

이연숙, 전은정, 파스 마리아 빅토리아, 안소미, 2019, "일본 쉐어가나자와 마을내 고령자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특성 연구", KIEAE Journal, 19(2), 5-1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화천 온종일 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방문, (2023.11.16)

토지주택연구원(김명식 외), 2022, "초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K-CCRC) 조성에 관한 기초연구"

Kozenji Temple (n.d.), Kozenji (Official site), https://kozenji.or.jp

Lewis, L., 2018, "Japan begins to embrace the 100-year life", Financial Times, (2018, Aug 8)

Park, K.-S.; Kim, I.-K.; Kojima, H., 1999,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and nearness in Korea and Japan: Unbalanced aspects of family changes", International Journal of Japanese Sociology, 8(1), 93-115

Social Welfare Corporation Inahokai (n.d.), 木もれ陽の郷 (Kinmokusei) [Facility info], MHLW Kaigokensaku(official facility search)

Social Welfare Corporation Ubuntu. (n.d.), Share Kanazawa [Official website], http://share-kanazawa.com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Case study: The age-friendly programme in Akita City", WHO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접수 : 2025년 7월 15일
1차 심사완료 : 2025년 7월 31일
게재확정일자 : 2025년 7월 31일
3인 익명 심사 필

www.kci.go.kr